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며 보내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편지 말씀을 간략하게 들어봅시다. 주제는 “인공지능과 평화”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탈출 35,31)를 채워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능은, 우리가 창조주께 받은 존엄을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가 의식적이고도 자유롭게 당신 사랑에 응답하게 해 주셨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 지능의 창조적 잠재력이 빚어낸 빛나는 성과입니다.

과학과 기술 덕분에 인류는, 삶을 괴롭히고 커다란 고통을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개인의 삶과 사회에, 그리고 국제적 안정과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술의 무한 확장에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책임 교육이 따라야 합니다. 인간이 이기심, 개인의 이익, 이윤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라는 유혹에 진다며, 자유와 평화로운 공존은 위협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야를 넓혀 과학 기술의 연구가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한 발전에 봉사하면서 평화와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인공 지능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지만 인간과 경쟁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공 지능이 온전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삶의 수준을 높이며, 인간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소통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관계들은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디지털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가르침과 교육과 양성 방식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과학과 기술, 인공 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며 인류를 괴롭히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의를 지닌 모든 이가 함께 일하여 디지털 혁명이 제공하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도전에는 맞서며 미래 세대에게 연대와 정의와 평화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교우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체를 사랑하는 삶, 성당을 사랑하는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 성체를 사랑하는 것은 미사에 자주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잘 보는 것입니다.
- 성당을 사랑하는 삶은, 교무금과 헌금을 정성껏 봉헌하고 성당과 기물을 내 집처럼 보호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 서로를 사랑하는 삶은, 신자들이 서로를 대할 때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 드림.



주님 공현
대축일

2024년
01월 0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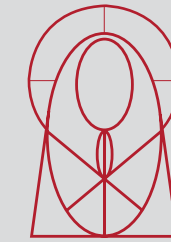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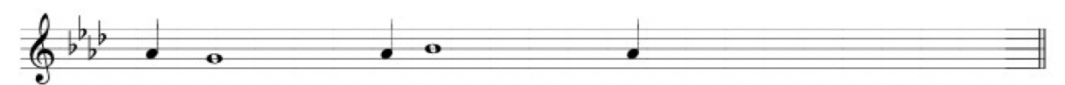
OUR LADY OF MERCY PARISH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오2,2>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이사야서60,1-6
- #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후렴: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3,2,3나,5-6
- # 복음 환호송 마태 2,2 참조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오 2,1-12

성기번호 입당 100 봉헌 106, 108 성체 103, 105 파견 487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박 마리아 가족, 박재영(요아킴)가족, 반석희, 변태용(요셉), 최영옥(모니카), 배인경(마리아)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이금주(베드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이동현(요셉) - 이순재(마리아) 가족
 - 길정숙(루시아) - 정 테레사, 성가대

-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가정 - 전옥주(글라리아)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가정 - 전옥주(글라리아), 채희백(바오로)/채미영(테레사)
 - 오현주(요한) 예비 부제님 - 채희백(바오로)/채미영(테레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오애희(유리안나) - 이대우(베드로) 부부
 - 오현주(요한), 오욱자(테레사) - 박재영(요아킴) 가족, 이대우(베드로) 부부
 - 김삼식(베드로) - 배인경(마리아), 손영학(빈첸시오), 이서형(요안나)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 백상현(요셉) 가족, 박락준(베드로)

- David Teese - 백상현(요셉) 가족
- 김광태(루카) - 백상현(요셉) 가족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이종민, 김진희(아우렐리아), 이예원(킴버리 데오도라) 가정 - 성낙순(미카엘라)
- 장은진(보나) - 안현정(소화테레사)
- 순교자들의 모후 Pr. 단원들 가정 - 전옥주(글라리아)
- 메타천 구역 형제, 자매님들 - 허 아나스타시아
- 강식(이보), 우헬렌(헬레나) - 허 아나스타시아
- 오용운(토마스 아퀴나스), 오은주(로사) - 허 아나스타시아
- 김동근(사도요한), 송진영(마리스텔라) - 허 아나스타시아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12/31 주일 헌금 (144명) \$1,280
 - 교무금.....\$810
 - 안정자(12) 이보현(1) 한철희(1) 백상현(1)
 - 채희백(1-2) 배인경(10-12)
 - 감사헌금.....\$1,300
 - 전옥주(\$150) 황분숙(\$100) 익명(\$300)
 - 익명(\$250) 익명(\$500)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송희수(글라리아)

- 2차 헌금**
- 1월 7일: Together in Charity

- 2024년 1월 주일 미사 일정 안내**
- 1월 7일(주일)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한국어)
 - 1월 14일(주일) 오전 10시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한영 통합)
 - 1월 21일(주일) 오전 10시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한영 통합)
 - 1월 28일(주일)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한국어)

- 친교 봉사 일정**
- 1/21 울드브릿지 • 2/18 이스트브런스윅 • 3/17 피스브릿지

- 1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1/07 전광수, 전옥주 • 1/14 이숙희, 최윤규
 - 1/21 심윤조, 박화성 • 1/28 전광수, 전옥주

- 2024년 성당 달력 배부**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2024년 달력을 배부하오니 교우분들께서는 한 가정 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주소록 작성을 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 1월 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사무장 모집 공고 (문의 : 성당 사무실)**
- 응모자격: (1) 본당 신자,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 (3) 생활영어 가능하신 분

- 2023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쉼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가톨릭 교회 평신도
 - 접수마감: 2024년 2월 16일
 - 문의: 사무실

- 바오로말 성경학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 우편과 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 접수마감: 2024년 1월 31일
 - 문의 : 사무실

제1독서: 이사야서60,1-6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3,2,3ㄴ.5-6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 복음2,1-12

예수님께서서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